

# ‘K리그 최연소 출전’ 광주FC 김윤호 “부족했다”

금호고 2학년



광주FC 김윤호가 지난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장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경기 17세 4개월 17일로 데뷔전 선발 출전 후 29분만 교체 “많이 혼나고 반성해야 해”



K리그 최연소출전 기록을 새로 쓴 광주FC 김윤호(17)가 데뷔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두 아쉬움이 크게 남은 만큼 코칭스태프의 피드백을 거름 삼아 더 발전하겠다는 다짐이다.

김윤호는 지난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31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장했다. 이날 경기에 17세 4개월 17일의 나이로 나선 김윤호는 K리그1 최연소출전의 주인공이 됐으나 팀은 0-2로 패배, 파이널A 진출이 좌절되며 아쉬움을 안았다.

그는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프로 데뷔전에서 팀이 승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패배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개인적으로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김윤호의 출전 시간을 활약 여부에 따르겠다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윤

호는 전반 26분 요시오 카이나를 상대로 프리킥을 얻어낸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며 29분 만에 데뷔전을 마쳤다.

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프로 선수다. 프로 선수다운 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고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김윤호 역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다. 잘한 것이 전혀 없었다”며 “팀의 결과도 좋지 못했고, 제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29분 동안 프리킥을 얻어냈던 장면 외에는 모두 안 좋게 생각하고, 절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자책했다.

자책 가득한 답변을 내놨지만 김윤호는 이제 막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선수다.

이날 함께 그라운드를 누빈 22세 이하 자원 정지훈을 비롯해 안혁주와 문민서 등 역시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왔다.

김윤호는 “준프로 계약을 맺고 한 달 반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프로 팀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정호 감독님 밑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구를 배운 것 같다”고 되짚었다.

김윤호 역시 이 감독의 질책이 발전을 위한 따끔한 조언임을 아는 만큼 더욱 성

장하겠다는 각오다.

이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김윤호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교체돼 나올 때는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다는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전술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었는데 초반보다 발전한 것 같다.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고 더 좋은 축구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감 있게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형들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부딪혀라’라고 하셨는데 교체되면서 제 자신에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김윤호의 시선은 광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주축 자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후에는 해외 진출이라는 더 큰 꿈도 품고 있다. 마침 광주에서는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리그)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한 엄지성이라는 사례도 나왔다.

김윤호는 “많이 혼나고 반성도 해야 한다. 감독님의 지적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 금호고 선배인 (엄)지성이 형이 최근 광주에서 유럽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왼쪽)이 지난 4일 열린 한화이글스와 맞대결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한 제임스 네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한국시리즈 빌드업’ 이범호 “네일, 출전 문제 없다”

지난 22일 불펜 투구 40개 소화 시즌 종료 후 연습경기 등판 예정



‘투혼의 에이스’ KIA타이거즈 제임스 네일의 회복 속도가 무서울 정도다. 강습타구에 얼굴을 맞은 지 한 달 만에 불펜 투구를 시작하며 한국시리즈 선발 등판을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범호 KIA 감독은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을 앞두고 “네일은 한국시리즈 선발 등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80구에서 100구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놀라운 회복 속도다. 네일은 지난달 24일 창원 NC전 도중 맷 데이비슨의 강습타구에 얼굴을 맞고 턱관절 골절을 당했다. 다음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고정술을 받았지만 복귀 시점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이었다.

하지만 네일은 투혼을 펼쳤다. 수술대

에 오른 뒤 사흘 만에 퇴원했고, 약 일주일 만에 하체 위주의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그의 곁을 지킨 통역은 물론 트레이닝 코치들과 이범호 감독이 모두 놀랄 정도였다. 이 감독은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상황이다. 어제 20개씩 두 세트로 40개를 소화했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쉬고 50개에서 60개로 올린다”며 “불펜 투구를 60개에서 70개까지 하고 라이브 피칭이나 연습경기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수는 통증이다. 턱관절이라는 예민한 부위를 다쳤던 만큼 공을 던지기 위해 이를 약물다 보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과 트레이닝 코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감독은 “트레이닝 코치들과 자주 상태를 점검해서 혹시라도 통증이 생기면 재활 단계를 미루기로 했다. 네일도 스스로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출 수 있게 배려했다”며 “확실하게 점검이 된 상태에서 복귀 일정을 잡고 있고, 지금까지는 통증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빈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2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참가 선수단 환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 ‘금의환향’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환영 오찬 전남도장애인체육회 포상 수여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지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금의 환향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환영 오찬을 개최했고,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포상과 공로패를 수여하는 등 선수단 격려에 나섰다.

광주·전남 선수단은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은메달 6개와 동메달 2개의 성적을 뛰어넘은 쾌거다.

탁구 남자 단식(MS4)을 제패한 김영건(광주시청)은 지역에서 유일한 금메달리스트다. 그는 2004 아테네 대회 남자 단식과 남자 단체전, 2012 런던 대회 남자 단체전에 이어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며 사격의 김임연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패럴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국내 선수가 됐다.

탁구의 서수연(광주시청)과 보치아의 강선희(한전KPS)는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수확했고, 사격의 이윤리(완도군청)와 배드민턴의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메달을 보탤다. 탁구의 박진철과 김정길(이상 광주시청)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선수단은 광주·전남 선수단의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순위 22위를 기록했고,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을 이뤄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3일 ‘2024 파리 패럴림픽 광주 선수단 환영 오찬’을 개최했다.

이날 오찬에는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을 비롯해 한상득 광주시장에 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정선교 광주시장에 인체육회 발전위원회 추진단장 등이 참

석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에 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찬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을 목표로 씬 없이 달려온 선수단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다음 달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역시 같은 날 ‘2024 파리 패럴림픽 전남 선수단 환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리 패럴림픽에 나선 전남 선수단과 함께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정현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전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준 전남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규빈 기자